



ORIGINAL ARTICLE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간호사 비교

신 경 숙¹ · 김 혜 영²

¹세명대학교 아동병동 간호사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es in Pediatrics Ward compared to Adult Wards

Shin, Kyoung Sook¹ · Kim, Hye Young²

¹ Nurse, GyeongSan Seamyung General Hospital, Kyeongbuk

²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eimyung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making among pediatric nurses and adult nurse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mparative survey that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improvement of clinical decision-making for practical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9 practical nurses, 89 nurses working at pediatric wards and 90 nurses working at adult ward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making among pediatric nurses and adult nurs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making. Nursing professionalism was affected by clinical decision-making in both pediatric nurses (37.4%) and adult nurses (25.8%).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studies related to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will improve the clinical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are recommended.

Key words: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making, Nurses

주요어: 전문직관, 임상 의사결정능력, 간호사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 Kim, Hye Young,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82-10-3806-5190 E-mail : hye11533@kmu.ac.kr

Received: January 10, 2017 Revised: February 16, 2017 Accepted: February 21, 2017

서 론

연구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간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가치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2].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견해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3].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한 경우 간호업무수행도가 높으며 간호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하다[4].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간호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므로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능력에 있어서도 성과가 높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 이에 따라 간호사는 간호직에 대한 소명감,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6].

간호전문직관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와 신념이 형성되어, 간호의 의사결정 시 행위로 나타나며[3], 간호사가 갖고 있는 전문직관은 환자를 대할 때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 그러므로 간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확고히 정립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7].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에 간호의 전문성영역, 간호실무의 속성영역, 전문직 자아개념영역, 사회적 인식영역, 간호의 독자성 영역 중에 간호실무의 속성영역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다운 자질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보면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 또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임상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을 구분하여 함께 연구한 경우는 전무하다[6,8,9]. 이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는 소아 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호사들이 어

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1]. 국내연구에서 Choi와 Bang이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아동간호사-환자 부모 파트너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4], Choi와 kim이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 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다[10]. 국외연구에서는 아동과 보호자가 보는 간호사의 유니폼이 아동간호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11], 아동병동의 보호자와 부모의 간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구성요소로 간호사 전문성의 관계를 본 연구도 있었지만 [12] 아동병동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란 임상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과정으로 환자간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수준의 간호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능력이다[13]. 간호사의 의사결정은 같은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의사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4]. 임상 의사결정 능력은 간호실무를 구성하는 인지영역의 하나로서 간호사의 지각과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간호실무의 중심과업이라고 할 수 있고, 간호과정 중의 하나이며 환자간호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환자의 문제 목록이나 진단을 작성하고 적절한 중재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15]. 간호사의 업무는 먼저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 및 교육하고 타 부서와 상호협조하며 상부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업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16].

특히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 능력은 아동간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아동의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15].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은 간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통증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17]. 서로 다르게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 능력의 특성을 확고하고 어떤 요인에서 임상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5]. 하지만 성인병동 간호사와 아동병동 간호사간의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의 간호사들의 간호

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차이를 비교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의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그리고 아동병동 또는 아동전문병원에서 현재 1년 이상 간호직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성인병동 또는 특수병동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K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 40525-201602-HR-119-02)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2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중간정도의 effect size 0.3, power값 0.95, 유의수준 0.05에서 correlation을 분석하고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는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각각 88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100부씩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아동병동 89부, 성인병동 90부로 총 179부를 회수하였다.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현재 근무부서, 나이, 성별, 결혼유무, 자녀유무, 직위, 병원규모, 종교, 최종학력, 월 소득, 총 임상경력, 직위 및 병원규모에 대한 것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측정을 위해 Yoon 등[3]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 5개 영역 총 29문항을 Likert형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된다.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임상 의사결정능력

임상 의사결정능력 측정을 위해 Jenkins[13]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척도(The Clinical Decision-Making in Nursing Scale: CDMNS)를 Baek[1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가지 하부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하부영역은 ① 대안과 선택 조사, ②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③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및 ④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이다. 각각의 하부영역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화는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된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점수 범위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까지이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Baek[18]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병동별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병동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의사결정능력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병동별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에서 아동병동은 33.1±7.1이었고

성인병동은 30.8±5.5이었다. 결혼유무는 아동병동이 50명(56.2%)으로 기혼이 많았고, 성인병동은 59명(65.6%)으로 미혼이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아동병동 43명(48.3%), 성인병동 51명(56.7%)로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아동병동 51명(57.3%), 성인병동 44명(48.9%) 모두 전문학사가 많았으며, 소득은 아동병동 79명(88.8%), 성인병동 78명(86.7%) 모두 300만원 미만이었다. 대상자의 직책은 평간호사가 아동병동73명(82%), 성인병동 80명(88.9%)로 많았고, 병상규모는 400병상 이상인 아동병동 44명(49.9), 성인병동 72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diatric (n=89)	Adult (n=90)	t or X ²	p
		n (%) or M±SD	n (%)or M±SD		
Age (year)		33.12±7.101	30.84±5.561	31.45	.174
Gender	Male	3(3.4)	7(7.8)	1.64	.330
	Female	86(96.6)	83(92.2)		
Marital status	Single	39(43.8)	59(65.6)	8.53	.004
	Married	50(56.2)	31(34.4)		
Children	Yes	37(41.6)	28(31.1)	2.11	.164
	No	52(58.4)	62(68.9)		
Religion	Yes	43(48.3)	51(56.7)	1.25	.296
	No	46(51.7)	39(43.3)		
Education	College	51(57.3)	44(48.9)	1.27	.528
	University	32(36.0)	39(43.3)		
	≥Graduate	6(6.7)	7(7.8)		
Monthly income (10,000won)	≤300	79(88.8)	78(86.7)	0.18	.821
	≥300	10(11.2)	12(13.3)		
Position	Head nurse	8(9.0)	4(4.4)	1.93	.380
	Charge nurse	8(9.0)	6(6.7)		
	Nurse	73(82.0)	80(88.9)		
Hospital size (bed)	≤300	32(36)	6(6.7)	24.58	<.001
	300~400	13(14.6)	12(13.3)		
	≥400	44(49.4)	72(80.0)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아동병동 간호사는 평균평점 3.30±0.34점을 보였고, 성인병동 간호사는 3.32±0.39로 나타났으며, 성인병동 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평균비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정도는 아동병동 간호사가 평균평점 3.09±0.25점이고 성인병동 간호사가 3.08±0.20점으로 아동병동 간호사가 조금 더 높았으나 평균비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의사결정능력 차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교육정도(F=7.97, p<.001), 월 소득(F=4.78, p=.030), 병상규모(F=3.99, p=.020)에 따라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에서는 3년제 졸업 간호사와 4년제 졸업 간호사보다 석사 이상의 간호사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병원규모에서 300병상 미만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Table 3).

Table 2. Comparis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making among the subjects

(N=179)

Variable	Pediatric (n=89)	Adult (n=90)	t	p
	M±SD	M±SD		
Nursing professionalism	3.30±0.34	3.32±0.39	-0.42	.671
Clinical decision-making	3.09±0.25	3.08±0.20	0.27	.784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Decision-mak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diatric (n=89)	Adult (n=90)	t/F	p (Scheffe)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09±.25	3.08±.20	31.45	.174
Gender	Male	2.91±.29	3.03±.20	1.98	.161
	Female	3.10±.25	3.08±.20		
Marital status	Single	3.12±.24	3.09±.22	0.82	.365
	Married	3.07±.26	3.07±.16		
Children	Yes	3.11±.27	3.07±.17	0.11	.732
	No	3.07±.25	3.08±.22		
Religion	Yes	3.11±.30	3.11±.20	2.07	.152
	No	3.07±.20	3.06±.21		
Education	Colleage	3.08±.25	3.06±.21	7.97	<.001
	University ^b	3.04±.20	3.08±.20		
	≥Graduate ^c	3.46±.26	3.20±.19		
Monthly income (10,000won)	≤300	3.08±.25	3.06±.20	4.78	.030
	≥300	3.18±.26	3.20±.23		
Position	Head nurse	3.31±.43	3.07±.20	1.41	.246
	Charge nurse	3.09±.17	2.98±.21		
	Nurse	3.07±.23	3.09±.20		
Hospital size (bed)	≤300 ^a	3.15±.26	3.17±.19	3.99	.020
	300~400 ^b	2.95±.23	3.00±.10		
	≥400 ^c	3.09±.25	3.09±.2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아동병동에서($r=.52, p<.0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인병동에서($r=.37, p<.0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간호전문직관이며, 이들 변수들을 Stepwise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병동에는 간호전문직관($\beta=.45, p<.001$)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37.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인병동에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월 소득($\beta=-.27, p=.039$), 및 간호전문직관($\beta=.25, p=.020$)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5.8%의 설명력이 있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making

(N=179)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making	
	Pediatric (n=89) r (p)	Adult (n=90) r (p)
	.52 (p<.001)	.37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Clinical Decision-making of the Subjects

(N=179)

	Variables	B	SE	β	t	p
Pediatric (n=89)	Professionalism	.43	.07	.45	4.58	<.001
Adjusted R2 = .276		R2=.374		F(p)=3.78(<.001)		
Adult (n=90)	Professionalism	.13	.05	.25	2.37	.020
	Monthly income	-.17	.08	-.27	-2.10	.039
Adjusted R2 = .142		R2=.258		F(p)=2.23(.018)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 중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으로 분류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아동병동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척도에서 문항 평균은 아

동병동 간호사는 평균 3.30점이며, 성인병동 간호사는 3.32점으로 아동병동 간호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병동 간호사를 대상의 다른 선행연구인 Cho와 Bang [4]의 연구에서 3.48점이었으며, Choi [19]의 연구에서 중소병원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 3.23점을 보았을 때 성인병동 간호사보다 아동병동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특수한 근무환경 요인이 간호사들

의 아동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근무하고 있는 아동 병동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평균 연령이 아동병동은 33세, 성인병동은 30세이고 근무경력 역시 성인병동보다 아동병동이 더 높은 것을 보아 경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Cho와 Kim [20]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구가 평균 3.59점에 비하면 임상간호사들의 평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구들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상간호사와 아동병동 간호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이 취업을 하기 전 형성되었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실제 임상 경험을 하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19].

대상자들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 3.09점을 보였는데, 아동병동 간호사가 3.09점, 성인병동 간호사에서 3.08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나타내었으며,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평균 3.28점으로 간호업무성과의 예측인자로서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이나, 전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평균 3.51점, 암 전문병원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2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22,23]. 이는 전문 간호사이거나 전문화된 병원에서 비교적 정련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간호사이었던데 반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아동병동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화된 분야보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의사결정능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았으며 3년제, 4년제 보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Jenkins [13]의 연구에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높은 수준의 간호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능력이라 했듯이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이 계속 교육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임상강화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Park 등[24]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력, 임상경력, 직위, 종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ung과 Eum [25]의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에 반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력에 이어 월 소득과 병원규모에서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수입이 많을 것이고 병원의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아동병동($r=.52, p<.001$)이나 성인병동($r=.37, p<.001$)간호사 전체 대상자에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다운 자질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나타내준다. Choi와 Bang[26]의 연구에서는 아동 간호사의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Cho와 Bang [4]의 연구에서는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간호전문직관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간호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의 다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에 환아-부모-간호사의 협동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율성[25],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직무만족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고 [23], 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2]의 연구결과에서는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신속한 의사결정은 간호함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을 때 아동병동 간호사와 성인병동 간호사에서 모두 간호전문직관이 요인 변수로 나왔고 간호전문직관은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아동병동 37.4%, 성인병동 25.8%의 설명력을 보였고, Sung과 Eum [25]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력에 의해 의사결정의 효과가 향상되고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Lee 등[27]의 연구결과에서는 전문적 자율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 되었으나, 아동병동 간호사들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의사결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은 것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인병동 간호사들은 400병상 이상의

간호사들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아동병동 간호사들은 400명 이상 간호사들과 100명 이하의 아동전문병원의 간호사들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병동과 성인병동의 간호사들의 근무 병동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비교하여 아동병동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유형별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간호사의 특성의 차이를 보고, 향후 아동병동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아동 간호 실무영역의 지식개발과 확장 그리고 아동간호 실무에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아동병동 간호사와 성인병동 간호사를 비교 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두 병동 모두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병동 간호사와 성인병동 간호사들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간호전문직관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은 성인병동에서만 월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병동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병동과 성인병동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두 병동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를 토대로 병동 부서간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정도를 비교하며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

1. Im DA. Study on nursing profession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nurses [master's thesis]. Suwon: Ajou University;2004. p. 1-75.
2. Hampton GM, Hampton DL.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 - midwives. *J Bus Res.* 2004;57(9):1042-53.
[https://doi.org/10.1016/s0148-2963\(02\)00356-9](https://doi.org/10.1016/s0148-2963(02)00356-9)

3. Yoo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 Korean Acad Nurs.* 2005;35(6):1091-100.
4. Cho EJ, Bang KS.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Child Health Nurs Res.* 2013;19(2):94-101.
<https://doi.org/10.4094/chnr.2013.19.2.94>
5.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 Adv Nurs.* 2008;61(1):62-70.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6. Ham YS, Kim HS.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 Korean Acad Fundam Nur.* 2012;19(3):363-73.
<https://doi.org/10.7739/jkafn.2012.19.3.363>
7. Nam MH, Kwon YC.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10(9):417-27.
8. Sanjari M, Shirazi F, Heidari S, Salemi S, Rahmani M, Shoghi M. Nursing support for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Issues Compr Pediatr Nurs.* 2009;32(3):120-30.
<https://doi.org/10.1080/01460860903030193>
9. Espezel HJ, Canam CJ. Parent - nurse interactions: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J Adv Nurs.* 2003;44(1):34-41.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765.x>
10. Choi MY, Kim JS.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patterns and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Korean pediatric nurses. *J Pediatr Nurs.* 2015;30(6):e81-e8.
<https://doi.org/10.1016/j.pedn.2015.07.001>
11. Wocial L, Albert NM, Fettes S, Birch S, Howey K, Na J, et al. Impact of pediatric nurses' uniforms on perceptions of nurse professionalism. *Pediatr Nurs.* 2010;36(6):320-6.
12. Sarajärvi A, Haapamäki ML, Paavilainen E. Emotional

- and informational support for families during their child's illness. *Int Nurs Rev.* 2006;53(3):205-10.
<https://doi.org/10.1111/j.1466-7657.2006.00479.x>
13. Jenkins HM. Improving clinical decision-making in nursing. *J Nurs Educ.* 1985;24(6):242-3.
 14. Yi YJ. The Casual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to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2001. p. 1-97.
 15. Hwang IJ. Clinical decision making patterns of pediatric nurse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2012;15(1):20-32.
 16. Bae J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types of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master's thesis]. Pusan: Kosin University;2009. p. 1-77.
 17. Hamers JPH, Huijer^Abu-Saad H, Halfens RJG. Diagnostic process and decision making in nursing: A literature review. *J Prof Nurs.* 1994;10(3):154-63.
[https://doi.org/10.1016/8755-7223\(94\)90009-4](https://doi.org/10.1016/8755-7223(94)90009-4)
 18. Baek MK.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making in nursing scale of E.T nurse[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2005. p. 1-89.
 19. Choi YS.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5):2695-702.
 20. Cho HH, Kim NH.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 Korean Acad Soc Nur Edu.* 2014;20(4):548-57.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48>
 21. Kim YH, Cho KY, Kim MY. Canonical correlation among clinical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J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5): 2767-78.
 22. Kim YS, Park JS.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job performance in advanced practic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3;19(5):613-21.
<https://doi.org/10.1111/jkana.2013.19.5.613>
 23. Jeong SC, Jeong DY.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J Korean Acad Nur Adm.* 2011;17(4):443-50.
<https://doi.org/10.1111/jkana.2011.17.4.443>
 24. Park SM, Kwon IG.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 Korean Acad Nurs.* 2007;37(6):863-71.
 25. Sung MH, Eum OB.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Fundam Nur.* 2010;17(2):274-81.
 26. Choi MY, Kim JS. Associated factors in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Child Health Nurs Res.* 2014;20(3):176-84.
<https://doi.org/10.4094/chnr.2014.20.3.176>
 27. Lee YS, Gang MH, Jung MS. Impact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clinical decision making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3;22(4):285-94.
<https://doi.org/10.5807/kjohn.2013.22.4.285>